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주요 현황과 특화사례 분석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현황 및 성과

| 김희성·김진화·이주민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홍재봉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주은수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 임태영 |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sup>1)</sup>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 Organizing

엄태영 경일대학교 스마트경영학부 교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는 이 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 주체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마을공동체와 주민 조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 개인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관련한 주민 조직으로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서 진행된 7개 지역 8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특화 사례를 사업 내용 및 사업 성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기존의 각종 사회복지 관련 지원 사업들은 대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공급 주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하 특구 사업)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 조직화 접근은 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그간의 사업 성과들이 지속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까지 하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 조직들은 지역주민들이 수동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주도자가 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특별히 특구 사업에서는 영구임대단지 지역(부

1) 1기 특구 사업(2020~2023)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세부 성과평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산 북구, 강원 춘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급속한 도시개발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지역(인천 남동구),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광주 서구), 초고령화에 진입한 군 단위 지역(울진군)이라는 지역 특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 형태의 주민 동아리에서부터 학습 모임, 일거리 마련 활동,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 그 외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까지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조직들을 형성해 왔다.

특히 특구 사업 내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지향해 오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접근이다. 여기서는 인적 자원, 관계 자원, 물적 자원, 그 외 전문성이나 기술 등 다양한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동원하여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생적 주민 조직의 기반이 되는 커뮤니티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 접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 방식 이외에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별히 전통적 주민 조직화 사업에서 확장하여 풀뿌리 조직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조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관의 단독적 접근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접근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 공유된 이해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협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특구 사업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

[표 1]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특화 사례

연번	지자체	사업명
1	부산 북구	정신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1cm의 기적'
2	부산 북구	이웃이 이웃을 돕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동화'
3	인천 남동구	단지별 주민 모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까지 '서창어울림마을'
4	강원 춘천	지역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중물'
5	강원 원주	온마을 기후변화 대응 동행 프로젝트 '온기동행'
6	전북 전주	주민 조직화 '마음이음단'
7	광주 서구	'상록벚꽃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8	경북 울진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직화 사례에 대해서는 총 7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사례별로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사례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접근은 특구 사업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감과 연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사회자본 축적에도 기여한다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 2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례 분석

### 가. (부산 북구) 정신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1cm의 기적’

1cm의 기적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 조직화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 회복과 자기관리 지원 서비스, 맞춤형 사회참여와 직업재

활 연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 관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이 독립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단지에는 정신장애인 유입 비중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간헐적 개입에 그쳤고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는 기존 시각에서 탈피해 소생활권 단위에서 중증정신질환 대상자를 위한 포괄적 정신보건 보호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정신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강점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복지관이 축적한 자조 모임 등 서비스 실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을 확장하였다. 부산 북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비 대상자를 확보하고,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조사와 스كري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

**[표 2] (부산 북구) 정신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1cm기적 주요 내용**

#### □ 사업 배경

- 영구임대아파트 내 정신장애인 주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요소 증가
- 북구 사회복귀시설 미비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기회 박탈

#### □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내 우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정신질환의 초기 발견과 고위험군 초기 개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 증진 및 회복 도모
- 직업교육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재활, 취업 연계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증진
- 정신보건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표 2] 계속**

**□ 사업 대상**

- 1순위: 정신질환으로 약물 복용 중인 지역주민
- 2순위: 정신질환 진단 후 공격성 및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
- 3순위: 고위험군 우울 대상자

**□ 사업 내용 및 방법**

- 정신건강 심층 상담 및 사정 평가
- 정서 회복 및 안정을 위한 자기관리 수업: 고위험군 자기관리 프로그램 제공, 자조 모임 활성화
- 맞춤형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미술관, 원데이클래스 등 사회참여 활동 제공
-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진행: 정신장애인 선호 직업훈련 및 전문 교육과정 제공
- 아웃팅 및 선진지 견학: 북구문화예술플랫폼 등

**□ 사업 연계·협력**

- 부산 북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연계 관리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MOU 체결 및 프로그램 연계, 대상자 모집 지원
- 북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부산 생명의 전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및 전문관리
- 정신재활시설(하모니하우스, 주순애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취업 연계 지원
- 부산커피협동조합: 직업재활 활동(드립백 커피 제작) 연계

**□ 주요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 자조 모임 활성화로 지지체계 형성
- 정신장애인 직업 역량 강화 및 자립 의지 강화
- 지역 정신건강 증진으로 사회적 문제 예방
- 정신장애인 개입에 대한 연계 협력망 구축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35-536.

재활시설 의뢰가 필요한 대상을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하모니하우스 등 정신재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드립백 커피 제작 등 체계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여 역량 개발과 자립 의지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커피협동조합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드립백 커피의 판로를 확보하였다.

**나. (부산 북구) 이웃이 이웃을 돕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동화’**

이웃동화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텃밭 활동 참여를 통해 생산한 재료로 해독주스를 만들고 이를 매개로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각지대 이용자를 발굴하고 돌봄 수혜자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지위 변화를 모색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문제 해결



그 외 이웃동화 사업은 사업 수행 결과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꾸준한 운동과 식사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다. (인천 남동구) 단지별 주민 모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까지 ‘서창어울림마을’

서창어울림마을 사업은 아파트 단지라는 지역 특성상 이웃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층간소음 등

**[표 4] 단지별 주민 모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까지 ‘서창어울림마을’ 사례**

#### □ 사업 배경

- 재미와 배움을 원하는 주민들이 각종 모임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주민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보유

#### □ 사업 목적

- 각종 주민 모임을 바탕으로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감
- 취미와 학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민 모임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 대상

- LH 임대단지별 주민 모임
- 지역주민 동아리 13개(175명), 주민 모임 4개(122명)

#### □ 사업 내용 및 방법

- LH 임대 단지별 주민 모임: 색연필 풍경화 모임, 원예 모임, 건강체조 특강과 나눔 활동
- 동아리 양성 및 활동 지원: 주제별, 욕구별 소소한 모임 개최(글쓰기, 엄마독서모임, 만보걷기, 파워워킹, 뜨개모임, 컬러링아트 등)
- 마을 나눔활동: 마을을 위한 동아리 회원들의 봉사 및 재능 기부
- 동아리 연합교육 및 교류: 주민 모임 리더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리더 교육 등

####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서창마을어울림센터(만수종합사회복지관)
- 공간 지원 및 참여자 모집: LH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4곳
- 참여 아동 연계 및 활동 보조: 서창동 내 지역아동센터(서창, 충헌)
- 통기타 동아리 나눔활동 연계: 서창어울림주간보호센터
- 주민 모임 참여자 연합행사(플로깅): LH 14, 15단지 관리사무소
- 나눔텃밭 채소 후원: LH 14단지 관리사무소
- 시민옹호지원사업 연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 주요 성과

- 주민들 간 상호 부정적 인식 해소를 통해 주민 신뢰도 형성
- 주민 모임을 통해 복지관 및 이웃에 대한 경계를 낮춤
- 주민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어 나눔활동 진행
- 취미활동을 통해 주민 역량 고양 및 주민 교류로 사회적 고립 해소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39-540.

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주민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 모임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관심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시킨 의의를 가진다.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과 여가문화에 대한 주민 욕구가 있지만 건강, 경제, 교통상황 등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이웃 사랑 꾸러미, 발코니 콘서트 등 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주민 모임을 기획하여 복지관과 이웃에 대한 경계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주민 모임은 서로 알지 못하던 주민들 간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 형성과 모임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특

히 개인 역량 강화 중심에서 이웃을 고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서창어울림마을 사업은 취미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민 간 일상을 공유하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 라. (강원 춘천) 지역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중물’

마중물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조직 형성과 이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 [표 5] (강원 춘천) 지역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중물’ 사례

##### □ 사업 배경

- 영구임대아파트 내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관련 주민역량 향상 필요

##### □ 사업 목적

- 마을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자발성 및 복지 체감도 향상
- 주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주민 조직에 대한 집단효능감과 나눔 의식을 높임

##### □ 사업 대상

- 춘천시 효자2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 □ 사업 내용 및 방법

- 주민 조직 운영: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월 1회 정기회의 실시
- 주민 리더 교육사업: 주민 리더 조직인 마을활동가 대상 리더십 향상 교육
- 마을소통사업: 마을신문 발간, 커뮤니티 공간 ‘나눔’ 운영, 마을장터, 사랑나무뎃밭 활동
- 마을 공익사업: 우리 마을 지킴이, 환경개선 활동, 에코나눔 제작 활동

**[표 5] 계속**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효자종합사회복지관
- 월례회의 참석 및 의견 수렴: 주택관리공단 효자8관리소
- 주민기자단 강사 협력 및 자문: 강원도민일보
- 리더십 교육 강사 협력 및 자문: 마을과 사람
- 지역 갈등 신고 접수 및 해결: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 마을 텃밭 수확물 나눔: 사회혁신센터

**□ 주요 성과**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 매월 회의를 통한 마을 현안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조직 운영
- 주민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주도성 향상을 통해 이웃과의 소통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 주민들이 기존 수혜 대상에서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 변화 경험, 주민 공동체 형성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건설당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1-542.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마중물이라는 주민 조직이 만들어지고, 매월 회의에서 마을의 각종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주민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 주도성이 향상되었다. 마을 장터나 텃밭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나눔 문화도 확산시키고 있다. 그 외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바탕으로 깨끗한 마을을 실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수혜자에서 복지 공급자로 지위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참여 주민들은 주민 조직에 속해 마을의 각종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마을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주민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마. (강원 원주) 온마을 기후변화 대응 동행 프로젝트 ‘온기동행’**

온기동행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스스로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을 선도해 나가는 활동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기후위기와 기후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전 지구적 위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물건 오래 쓰거나 자원 환류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실천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특

## [표 6] (강원 원주) 온마을 기후변화대응 동행 프로젝트 ‘온기동행’ 사례

### □ 사업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은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 사업 목적

- 지역주민들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지역 내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관련 과제를 도출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해 나감

### □ 사업 대상

- 원주시 명륜2동 지역주민

### □ 사업 내용 및 방법

- 환경 관련 주민 동아리 조직화 및 친환경 활동
- 지역 내 기후변화 관련 기관 12곳과 협약을 맺고 각자 영역에서 과제 도출, 실천

###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연계 협력 기관: 강원원주대학교, 강원도농아인협회원주시지회, 도서출판 이음, 상지대학교, 아름다운 가게 강원본부,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투데이, 퀴비스터어, 탐마트, 한라대학교

### □ 주요 성과

- 지역사회 내 기후위기와 기후 취약계층 인식 확산
- 마을 단위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한 중요성 공감 및 구체적 실천 활동 전개
- 특구 사업에서 시작하여 원주 전 지역으로 확산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건설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3-544.

구 사업 지역을 벗어나 원주 전 지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역과의 연대를 구축하였다는 점도 새로운 실천 모델로 평가된다.

이 사업 수행 결과 주민들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난방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인 복벽이 전달 사업에서 지역 내 1만 2000부가 제공되었고, 일반 지역주민들도 300여 명 이상 신청하여 타 지

역으로까지 사업이 확대되었다.

### 바. (전북 전주) 주민 조직화 ‘마음이음단’

마음이음단 사업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양성하고 고독사 등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이다. 마음이음단이라는 돌봄공동체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위험

## [표 기] (전북 전주) 주민 조직화 ‘마음이음단’ 사례

### □ 사업 배경

-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구축 사업이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행됨으로써 중장년층 등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
- 대상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 □ 사업 목적

- 지역사회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 마음이음단의 육성 및 발굴
-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

### □ 사업 대상

- 마을활동 경험 있거나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 지역주민 39명

### □ 사업 내용 및 방법

- 마음이음단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마을활동가 교육, 정신건강 이해와 교육, 고립 가구 이해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마음을 읽는 교육, 비폭력 대화 교육 등을 진행
- 마음이음단 단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동행 활동, 체험활동 진행

###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평화사회복지관
- 정신질환의 이해 교육 진행: 마음사랑병원
- 고립 가구 발굴의 이해 교육 진행: 더길 사회적 협동조합
- 주민 조직화 교육 진행: 한국리더에이션 아카데미
- 비폭력 대화 교육, 마음을 읽는 교육 진행: 소통 연구소 ‘잇다’
- 환경교실 진행: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진행: 전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환경 관련 교 육진행: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 도박 중독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진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 생명지킴이 교육 진행: 한국자살예방센터 충북지부

### □ 주요 성과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돌봄공동체 양성 및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
- 마음이음단과 지역 내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확대
-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 연계를 넘어 주민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역량과 관계망 강화
- 마을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통한 주민들의 실행 주도성 강화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5-546.

가구를 발굴하고 정기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공적 서비스와 자원 연계, 주민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마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고독사나 저장 강박, 정신질환 등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사회적 고립 가구 문제가 모든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업 수행 결과 다양한 실천 경험들이 마을이음단이 구성되어 있는 통반장 모임이나 주민 자생단체에까지 확산되었고, 주민과 주민이 서로

돌보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사. (광주 서구) ‘상록벚꽃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운영

이 사업은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다양

**[표 8] (광주 서구) ‘상록벚꽃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 □ 사업 배경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돌봄, 일자리, 주거, 건강을 중심으로 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사업 목적

-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 사업 대상

- 광주 서구 농성1동 마을 관리협동조합

#### □ 사업 내용 및 방법

- 마을 관리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자문,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관련 거버넌스 구축
-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정관 수립, 사업계획 수립, 수지 예산계획 수립을 TF팀과 함께 논의
- 지역주민, 조합 발기인, 사업 관계자와 함께 창립총회 시행
- 조합원 간 또는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촉(사회적협동조합지원단체, 법률사무소, 서구의회, 서구청 관계 부서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관, 협동조합 구성원 등)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후 자립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의 전문가를 통한 협동조합 준비대학 운영: 마을 돌봄, 베이커리, 커피, 반찬사업단 운영 지원

####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농성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협동조합 운영 지원, 마을 공동체 및 기존 운영조합 간 통합 관련 협의 구조 운영: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동조합 설립 신청 및 인가 추진, 협동조합 내 3개 분과 운영 지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 주요 성과

-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및 다양한 공동체가 포함된 상시 운영 가능한 협의기구 형성
- 기존 활동가 이외에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협동조합에 투입하여 조직 응집력과 의사결정력을 향상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7-548.

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상시 운영 협의기구를 형성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지역사회의 각종 사업은 지원이 종료되면 사라졌으나, 이 사업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품 판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을 하며 사업의 자생력을 형성하였다. 협의기구를 바탕으로 마을 발전 및 협동조합 자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마을활동가 외에 새로운 참여자를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형성하였다. 즉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주변인으로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인적 자원 투입을 통한 마을 활동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특구 사업을 통해 발굴된 인적 자원을 협동조합 발기인으로 초대하고 새로운 핵심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특히 협동조합 이사진에는 기존 활동가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주민들이 이사와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조합 등에 참여토록 하여 단체 응집력과 의사결정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주민 협의체 중심의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돌봄, 일자리, 주거, 건강 등의 사업을 마련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아. (경북 울진)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은 특구 사업 종료 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갑 사업, 밀키트 사업, 통합돌봄 사업 등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민 주도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 단위 농촌의 특성상 조합 설립 과정에서 특정 마을이 배제되지 않도록 24개 행정리별 발기인을 사전에 추천받고 이장협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이 특구 사업 수행기관 중심이 아니라 마을 주민 중심이 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민간 서비스 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구 사업 지원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수행하던 사업의 지속 운영 여부가 가장 큰 과제이다. 따라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들의 좋은 반응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 [표 9] (경북 울진)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 □ 사업 배경

- 특구 사업 종료 후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 사업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 참여 기회를 제공

### □ 사업 대상

- 울진군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15명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성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혜자는 기성면 65세 이상 노인

### □ 사업 내용 및 방법

-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고유 목적 사업인 장갑 제작 및 판매, 밀키트 사업, 통합돌봄 사업을 통한 지원
- 장갑 사업과 밀키트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과 판매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 통합돌봄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사각지대 문제 해결

### □ 사업 연계·협력

- 사업 수행기관: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지역과 소셜비즈, 별빛사회적협동조합
- 장갑 및 밀키트 구매 지원, 균유재산 무상임대: 울진군
- 지역사회 환원 사업 및 마을별 대상자 발굴: 기성면 이장협의회
-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협력사업 추진: 기성면 사무소

### □ 주요 성과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장갑, 밀키트 사업, 통합돌봄 사업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 형성
- 특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시니어클럽을 기성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매우 향상된 상황임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9-550.

## 3 나가며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는 특구 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매우 높지만 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부족한 지역의 특

성을 주민 조직 활동을 통해 보완하고, 각종 마을공동체와 주민 조직들은 마을 내에서 함께 사는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웃과 끊임없는 소통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복지 수혜자로 살아왔던 지역주민의 삶을 탈피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에 참

여함으로써 마을의 각종 현안을 발굴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취미활동이나 학습활동,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눔과 복지 대상자 발굴, 환경운동과 일거리 마련,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들의 자조 모임 조직 등 매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개인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마을 활동과 관련한 주민 조직으로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민 조직의 형태는 동아리나 주민 참여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민 조직 구성 과정에서도 지역 내외의 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과 협업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주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러 어려움도 발생하였다. 특구 사업 지역이 대부분 고령화의 이슈를 경험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 조직을 주도할 토착적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개별적 존재로 살아오며 따라 이들에게 공동체를 인식시키고 협업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특구 사업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주민 조직 활동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은 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던 전문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참고문헌

김희성, 김진희, 이주민, 김가희, 임덕영, 주보혜, 홍재봉, 엄태영, 채현탁, 주은수, 어유경, 손호성.(202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 Organizing

Um, TaeYoung

(Kyung Il University)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 organizing hold great significance in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as it is through these undertakings that its outcomes are rendered sustainable. These efforts represent attempts by community and resident organizations to address the needs of their municipalities, where social service providers are scarce despite a high proportion of socially vulnerable residents. These initiatives have led not only to enhanced resident capacity-building but also to the expansion of resident organizations. This article examines eight cases of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 organizing, exploring their components and outcomes across seven localities involved in the first wave of the special support project.